



전북지방병무청, 호국보훈의 달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제66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을 비롯해 각 과장, 신규직원 등이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냄새를 기리고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직생활을 시작한 신규직원들에게는 업무 적응에 앞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영희 청장은 참배를 마친 후 “국가의 위기 앞에서 진정한 자기희생의 용기를 보여준 호국영령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전북지방병무청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국립임실호국원 참배 참뜻 기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다가오는 제66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참배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이주현 청장을 비롯한 소수의 전북지방조달청 직원들만 참여했다.

이주현 청장은 “나리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며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해바라기봉사단, 소외계층에 ‘밀반찬’

완산구, 독거노인·거동 불편 장애인 등에 전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2일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장애인, 부자세대 등 15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20여 명은 여름김치, 어묵볶음 등의 밀반찬을 만들어 몸이 불편해 음식 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이 커진 소외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의숙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마스크를 쓰고 조리를 하기 힘들었지만, 맛있게 밀반찬을 드릴 이웃들을 생각하면 봉사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고 말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성이 가득한 밀반찬 지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가는 적극행

정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1998년 창단된 이래 폐지 수거 어르신 생일케이크 나눔, 김장 및 명절 나눔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앙동 ‘나이키전주제일점’ 착한가게 협판 전달식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동장 최훈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호정)는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중앙동 ‘나이키’ 전주제일점(대표 박영근)을 찾아 착한가게 협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모금된 후원금은 긴급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난방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박영근 나이키 전주제일점 대표는 “착한가게”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호원대 유아교육과, 모아맘 보육재단과 협약

호원대 유아교육과가 보육전문기관 모아맘 보육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희성 총장, 장병권 부총장, 및 유아교육과 교수, 그리고 재해선 모아맘 보육재단 대표, 양영희 원장, 윤지영 교육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육현장실습 지원 ▲영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인턴십 및 취업 관련 협력 등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선영 학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보육현장 경험과 체계적인 실습 환경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양 기관은 추후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맘 보육재단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한국가스공사, LG, SK 히어닉스 등 전국 118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육 전문재단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지봉센터에서 사랑 실은 V트럭 전달식 가져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2일 ‘사랑 실은 V(VOLUNTEER)-트럭’을 후원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운광섭 회장과 전북지구 청년회 회장 나경균 지구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도내 나눔의 순간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실어 나르는 이번 차량 후원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전북도자원봉사센터의 활동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한건설협회전북도회 운광섭 회장과 전북지구 나경균 회장은 “이번에 후원한 사랑 실은 V(VOLUNTEER)-트럭이 자원봉사센터의 범이 꿈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진안 안천중 총동창회, 1학년 전원에 장학금 지급

진안 안천중학교 총동창회가 후배사랑과 모교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19년 제5기 총동창회장단(신임회장 19회 박천운)은 출범과 함께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 동문 가족들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천중 총동창회는 작년 8월부터 목표액 1억 원을 위한 장학위원회(위원장 19회 한희)를 결성,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기금을 모았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및 학부모에게 위로와 용기 を 주기 위해 1학년 5명 전원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작년에도 1학년 7명에 100만 원씩, 2학년과 3학년 15명에 각각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